

#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2곳 선정

금호, 중동·미국계 펀드로 암축

내달 15일 까지 본계약 마무리

대우건설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동계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와 미국계 펀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2곳 모두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노리고 경영보다 자산·기술에 관심을 두는 재무적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3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임찰 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투자자 3곳을 평가한 결과,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을 복수의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베즈파트너스의 주요 투자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공사로 중동의 대표적 국부펀드이고,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의 주요 투자자는 지난해 미국 뉴욕지역의 매출액 기준 1위 기업으로 알려진 티시만(Tishman Construction)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 곳 모두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증명된 투자자로 판단돼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를 펀드와 컨소시엄은 모두 중동과 북미 시장에서 각각 대우건설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를 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강한 인수의지를 보여왔다며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호아시아나가 복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막바지까지 가격 협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당 2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인수가격은 정밀실사 후에 제시될 금액을 기준으로 5~10% 범위에서 조정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3일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동과 미국계 컨소시엄을 복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부 건물.

금호아시아나는 매각주간사와 함께 이들과 상세 실사 진행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15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내에 대우건설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금호아시아나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것

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매각 작

업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는 자구노력을 통해 총 6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러나 대우건설 인수로 3년 만에 최소 1조5천억원의 손실(주당 2만원 매각시)을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당 2만원땐 3조3천억 확보... 금호 유동성 '숨통'

### ■ 대우건설 가격협상 잘 될까

23일 대우건설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 2곳이 선정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빠른 시일 안에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이들과의 가격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대우건설 몸값을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제와 대우건설 인수 의지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매각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가격협상 잘 될까= 앞으로 1개월간 진행될 금호아시아나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가격 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인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은 모두 대우건설 인수 가격으로 주당 2만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의 주식 50%+1주를 주당 2만 원에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3조3천억 원가량이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에 제시한 가격과 다른 수준에서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물론 금호아시아나는 현 유동성 상황상 본계약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인수가격이 조정되더라도 대우건설 매각 가격을 주당 2만 원 이상에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의 인수자금 가운데 부족분에 대해 산업은행이 투자 형식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민생은행은 금융지주 회장은 “산은금융은 필요하다면 대우건설 인수 자금의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가 재무개선 협상을 이행해 유동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 탈출하나= 일단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는 자구노력을 통해 총 6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뜻밖옵션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내용도 이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뜻밖옵션은 금호아시아나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3조5천억 원 정도를 지원받은 대신 올해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행사가격인 3만1천500원을 밀들면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계약이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과 2008년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과 대한 통운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6조 원 이상을 조달했다. 현 시점에서 대우건설의 뜻밖옵션을 해결하는데는 4조 원가량이 필요하고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매각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도 2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자구노력으로 6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금호아시아나의 계획이다. 대우건설 매각으로는 3조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의 유상감자를 통해 1조4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금호타미널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매각으로 각각 2천190억원과 2천705억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 대우일렉도 새 주인 찾나

체들만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일렉은 지난 2007년 영업이익 75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출시된 드립업 시리즈가 90년대 돌풍을 일으킨 ‘공기방울세탁기’ 신화를 재현하면서 올 분기 매출 3141억 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가전 시장에서 쓰아온 브랜드와 백색가전 분야에서의 생산 노하우, 기술력을 감안하면 향후 대우일렉 인수 업체가 공격적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라인과 본사를 광주공장으로 이전, 접적화가 이뤄진다는 점도 시장 효과를 내면서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체권단은 매각 공고에 이어 24일부터 대우일렉 인수에 관심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안내서(IM)를 발송하는 등 다음달 22일까지 인수의향

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체권단은 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입찰적격자 선정 절차 등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지난 20일 담보권자·체권은행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대우일렉 체권단협의회’를 통해 대우일렉 매각협상 진행을 위한 세부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실사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체권단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대우일렉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업계에서는 사업 구조

조정과 대규모 인력 감축 등 혹독한 과정을 거쳐 대우일렉이 이전과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인수 의사를 내비친 국내의 업



## 금호, 獨 벤츠 트럭용 타이어도 공급

금호타이어는 국내 업계 최초로 세계 1위의 상용차 기업인 독일 다임러 메르세데스-벤츠에 트럭용 타이어(사진)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벤츠의 장거리 운송용 액트로스(Actros) 건설용 덤프트럭과 트랙터로, 일단 국내 수입 물량에 대해 1차적으로 5가지 규격의 타이어를 공급하며 이달 말부터 국내에 본격 출시될 것이라고 회사 층은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19.05 (-1.55)
코스닥지수
479.80 (+0.37)
금리 (국고채 3년)
4.30% (+0.04)
원·달러 환율
1,155.7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편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 수완 메디컬 센터

### 1층 약국 \*외환은행 입점 확정 (2010년 2월)

### 2층 내과, 소아과 등

### 3층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 4층 피부과, 비뇨기과, 외과 등

### 5층 정형외과 등

#### ▶ 병·의원 전문 빌딩, 임대

####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 각층 155평(분할가능)

사/원/모/집

남·여 0명 (\* 20대 후반~ 30대 초반)  
기본급+성과급  
부동산 관련학과 졸, 이력서 지참

### \* 분양문의 \*

(유)코리아랜드컨설팅

959-1033, 010-7723-1033

## 대인동삼일부동산

한(代)223-1140, 5210 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근린면)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

광장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환경 대우건설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소재지/건물 갈망기 초기자금 비고